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하수도 시설 확충 내년 국비 162억 반영

고창군이 내년도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관련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0건 등 국비 162억6000만원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사업으로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8억원), 공용 하수관로 정비사업(89억원), 고창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58억원) 등 총사업비 245억원 규모의 사업이 신규 반영됐으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 환경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하수도 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 어린이 흡연예방 교육 실시

부안군보건소는 오는 8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385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구연동화와 마술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담배연기로 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건강위협인식을 높여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가정에 전달하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통해 흡연하는 부모가 금연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몸이나 옷 차인의 좌석 시트 등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렇게 흡착된 화학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3차 흡연'이라고 한다. 아이의 경우 체중이 적게 나가고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그 노출 정도가 성인에 비해 더 높다. /부안=김석진 기자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 박차

정읍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가 첨단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신정동 연구개발특구 180만㎡에 2023년부터 2052년까지 30년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조7천여억원 규모로 신약·의료기기개발센터와 신약 생산센터, 실험 동물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바이오 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바이오신약과 BT 기반 의료기기를 주 품목으로 하는 중복 오송 합성신약과 IT 기반 의료기기를 특화한 대구·경북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데이터·AI 기반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전북 중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 3일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과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구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조성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과 연구기관 핵심 연구원,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김석환 의원,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기존 대구·경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등등 이상의 차별화된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지역이 대구, 오송에 이어서 제3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지정받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이오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공비축미곡 · 시장격리곡 수매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 농업인들 격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4일 2022년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견조벼 수매현장(부안면 고창농협 봉암창고)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총매입량은 1만7128.8톤으로 산물벼 3404톤, 견조벼 1만3724.8톤이다.

이 중 공공비축미곡 견조벼 매입물량은 7262.4톤으로 전년 대비 2751.4톤 증가하였으며, 수확기 시장격리곡은 6462.4톤이다. 매입품종은 신동진 수광으로 11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고창군 정부양곡창고 33개소에서 매입이 진행된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2022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해 결정된다. 매입대금은 농가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



매한 즉시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나머지 차액은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농에 최선을 다해주신 농업

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매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는 더 큰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 '앞장'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호국정신을 선양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정읍시 호국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

자와 유족은 1,860명이다.

그러나 시는 다수의 미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전북서부보훈지청과의 협조를 통해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신청 제도를 모르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유공자 발굴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 268명, 2022년 123명 총 391명의 미신청자를 발굴했으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제의 대상 확

인을 마친 후 가구별 신청 안내를 통해 13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밖에도 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위문품 전달,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수여,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현충 시설 관리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에서 추진한 제 18기 친환경벤처농업대학 졸업식이 지난 3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졸업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졸업식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권익현 군수 등 참석... 90명 졸업생 배출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에서 추진한 제 18기 친환경벤처농업대학 졸업식이 지난 3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졸업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2022년 친환경벤처농업대학은 치유농업반, 푸드플랜반, 참콩부안한우반 등 3개 과정으로 지난 3월부터 학사 일정을 운영, 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론·실습·현장교육 등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농업인대학은 부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사업 중 하나로 부안농업의 발전에 대하여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기를 수 있도록 중점

적으로 교육하였다.

친환경벤처농업대학은 2022년 현재까지 1,711여명의 우수한 전문농업경영인을 배출했으며 이날 졸업식에서는 치유농업반 김광철씨가 농업인대학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으며 대학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계화면 김수연씨 등 5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한 해 동안 최고의 농업인이 되기 위해 주어진 학습·현장교육 등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수진과 직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벤처농업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농업 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맥류 고품질 생산 위해 적기파종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기)는 맥류의 안정적인 수확 확보와 저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늦어도 11월 10일까지 파종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한 달 이상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어 파종여건이 좋아 파종 시기가 대부분 5일 이상 빨라지고 있지만 콩·맥류 2모작 농가는 콩 수확 문제로 파종이 늦어지고 있다.

맥류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파종해 다음 해 5~6월 수확하는 월동작물로 정읍 지역에서는 주로 흰찰쌀보리와 새금강밀 등이 재배되고 있다.

특히 논타작물재배에 대한 관심과 전락 작물 직불제의 영향으로 올해는 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맥류가 안전하게 월동하려면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잎이 5~6매 정도 나올 수 있도록 파종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적정 파종 시기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며 늦어도 11월 10일까지는 파



종해야 한다. 밀의 경우 3~4월 저온 피해가 예상되면 11월 초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상 여건 등으로 파종 시기가 늦어질 경우 기준량(10kg당 16~20kg)보다 20~30% 증량해 파종하고 밀 거름으로 인산 가리를 증시하면 입모율 확보와 내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맥류 파종이 늦어지면 안전하게 겨울나기가 어려워 수확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꼭 늦지 않게 파종하고, 파종 후에는 배수로 정비 등 포장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